

# 고의교통사고 빈발...보험사기 표적, 이곳을 조심하라

경찰 수사·법원 판결로 드러난 광주 보험사기 다발지역은

좌회전 차선서 직진하는 양제차량 노려 "꽁"...억대 보험금 챙겨  
양산사거리선 1년간 14건...풍암IC교차로·동운고가 등도 빈번

1년 간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10건, 20건 일어났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찰이 최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에 주목,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차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를 택해 범행을 일삼았다. 피의자들이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지만 피해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 사실로 인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경찰이 파악한 주요 범행 장소는 보험사기범들이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기다릴 정도로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이다.

◇양산사거리=광주북부경찰이 최근 적발한 36명의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선택한 핵심 범행 장소는 양산사거리로, 양산동 우체국에서 해오름 한방병원 방향 도로다. 이들은 4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데, 해당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을 타겟으로 삼았다. 출·퇴근길, 직진 차로보다 수월하게 해당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양제' 운전자들의 행태를

악용했다.

이들은 1차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들만 골라 그대로 들이받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량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선을 이용한 차량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사고 이후에는 "왜 좌회전 차량에서 직진을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며 항의해 보험금과 치료합의금 등을 받아냈다.

이들이 양산 사거리에서 1년 간 낸 사고만 14건으로, 챙긴 보험금 등이 1억원을 넘는다.

◇동운고가·신안 사거리=출퇴근길이면 대표적 범목 현상이 빚어지는 광주 동운고가도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이용한 범행 장소였다.

운암동에서 동운고가를 타고 가다 운남지구로 빠져나가거나 경신여고쪽에서 동

운고가를 따라 광천동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가던 차량들이 얽힐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남지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게 양보하는 척 비켜줬다가 급발진을 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례도 많다"며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고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 평균 70%의 과실비율을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동운고가를 타고 가다 경신여고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을 노린 범행도 적지 않다. 광천동에서 동운고가를 따라 전남대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은 금지됐지만 단속이 없다보니 빈번한 차선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범들은 이의 무등도서관 사거리와 신안사거리에서도 이같은 차로 위반 차량들을 노린 범행

을 일삼았다.

◇풍암IC 앞 도로=서구 풍암IC 교차로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앞 교차로도 위반 차량들을 골라 범행을 벌였던 장소였다.

제 2순환도로 풍암지구 IC를 빠져나와 풍암동과 송암동, 매월동으로 나뉘는 교차로에서 송암동 방면 직진 차선을 따라 가다 풍암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부경찰이 최근 붙잡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시장과 풍암동을 연결하는 풍암IC 교차로 등 매월동 일대에서만 40건의 고의 사고를 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만 1억원이 넘는다.

보험업계측은 풍암IC의 경우 한해 평균 30여건의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우범지대로 꼽고 있다.

경찰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을 뒤쫓아 들이받거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등 차로 위반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내는 게 보험 사기 범죄자들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경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앞길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골라 15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이외 서구 양동 북개사가 누문동 방향 도로와 서구 계수사거리 차로 위반 운전자들도 보험범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 준수 등 교통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원 사망 3년...노동환경 얼마나 달라졌나

## 과로 부르는 토요일 근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우정사업본부 재발 방지·노동여건 개선 미흡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2017년 9월 5일, 추석(10월 4일) 특별 배송기간을 앞두고 광주 서광주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이길연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옆에는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러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가 놓여 있었다.

이씨는 그해 8월 10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3주간 병가를 냈다.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기였다.

1000일 무사고운동을 펼치던 우체국측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무상 병가 사용을 억제시켰다는 게 당시 사고 이후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장이었다. 또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 우체국 CC(폐쇄회로)-TV에는 왼쪽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씨는 병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측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3년이 흐른 올해,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선,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이 사고 이후 줄곧 요구해온 '토요일 근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토요일 근무제 폐지는 전국집배노동조합이 반복되는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기존 2주에 한번 쉼이던 토요일 근무는 3개월에 한번 쉼을 줄였을 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집배원들 목소리다. 인력도 추가로 증원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집배원들 주장이다.

편지 한 통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건에 30초 라는 우정산업본부 업무고강도시스템 상의 기준으로 인해 과로에 따른 열악한 처우도 여전히 실정이라는 것이다.

집배원들은 "사고,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배달물량을 매뉴얼 상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초과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집배원 본인 보험으로 처리했던 업무 중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이씨 사망을 계기로 달라진 점이다. 근무 중 사고로 몸을 다쳤을 때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가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 수재민에 '홍어' '오뎅탕' 비하...물상식 누리꾼 2명 잡았다

다음주 피의자 소환 조사  
광주경찰 엄정 대응 밝혀

경찰이 집중호우로 생활터전과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홍어', '오뎅탕'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명을 찾아냈다.

당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행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달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명의 신상을 확인하고 모욕 혐의(모욕죄 위반 등)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해 입건, 다음주 소환에 조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일베사이트 등에 피해 가족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갯잡은 새끼홍x, 오뎅탕'으로 비하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납골당 침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가족들 기사와 관련, '미숫가루 먹어서 줄 서는 사람들', '죽어서도 발발는 광주'라는 비상식적인 글을 올린

### 5·18 당시 1항공여단장 전두환재판 위증죄 고발

7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의 사자(死者) 명예 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인 송진원씨를 위증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증언(《광주일보》2019년 12월 19일 6면)했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1980년 5월 작성된 항공공과사에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의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총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귀대했다"고 적혀있다고 고발을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